

일제강점기 언론인·민족지도자 고하 송진우 재조명 본격화

2023-09-05 14:28 이영란 기자

‘獨立을 향한 執念(독립을 향한 집념)’ ‘巨人(거인)의 숨결’ 출간
항일독립운동사와 해방전·후사에 관한 귀중한 사료



정부도 없던 일제 암흑시대에 민족의 목소리를 담던 신문을 홀로 짊어진 선구자가 되어 희생과 탄압을 무릅쓰고 민족의 앞길을 열어간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 재조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에서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 언론인, 정치인이었던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1890~1945)에 관한 책 獨立을 향한 執念(독립을 향한 집념)과 巨人(거인)의 숨결을 출간하였다.

“獨立을 향한 執念(독립을 향한 집념)”은 3.1운동과 국내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고하 송진우의 일대기를 담았고, “巨人(거인)의 숨결”은 고하 송진우 선생이 직접 쓴 글과 동시대의 인사들이 고하에 관하여 기록한 글을 모았다.

우리나라 근대와 현대의 역사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전기(傳記)나 회고록이 많이 출간되고 있지만, 주관적인 서술이거나 시대 순에 따른 활동상황을 정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료의 부족과 단편적인 정리는 한 인물의 사상과 활동했던 시대와 공간을 정확히 그려내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다.

이에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흩어지고, 숨겨지고, 희미해진 작고 소소한 기록과 사료를 한땀한땀 모음으로써 당시의 시대와 고하 송진우의 일대기와 사상을 풍부하게 복원해 놓았다. 각각 760페이지(독립을 향한 집념), 1130페이지(거인의 숨결)에 달하는 두 권의 책자는 비밀을 생명과 같이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에 감춰지고, 지워진 것들을 찾고, 그동안의 시간과 망각이 만들어낸 왜곡과 오해를 털어내는 여정과 성과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인의 숨결

거인의 숨결



*The Writings and Biographical Materials
of Mr. Jinwoo Song*

고하 송진우(古下 宋鎮禹)
글모음 및 관계자료집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야기미술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진 고하 선생의 유품 중에서 여러 인연으로 수집된 사진 등을 더함으로써 더욱 생생한 시대를 구현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로부터 발굴해 낸 상당수의 논문과 동아일보에 사설로서 게재된 바 있는 글들과 함께 대담, 인물평, 일화, 기타 관련 자료를 한데 정리함으로써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인생관과 시대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해방 후의 건국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기념사업회와 편자들은 본문에 인용된 한문을 한글로 바꾸고 한문 표현을 우리말로 다듬는 등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젊은이들도 편히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고하 선생의 글의 시대성은 그대로 간직하되, 함께 현대의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과 편집을 진행한 것이다. 사실 고하문집(古下文集)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한자와 한문식 문체로 되어 있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위해 선생이 직접 집필하신 글의 경우에는 대체로 원본에 충실하였지만, 제3자가 집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글로 고쳐서 읽기 쉽게 편찬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두 권의 책은 고하 선생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뇌, 정신 그리고 줄기찬 투쟁에 담긴 시대정신을 함께 되새길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사와 해방전·후사에 관한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다.

한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 고하 선생을 따르는 동지와 후학들이 하나둘 모여 그분의 업적과 사상을 잇기 위해 매년 추모식과 함께 당시의 시대와 선생의 사상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송진우 #일제시대 #전시회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